



[산업] 삼성전자 '갤S9' 완전자급제 신호탄 되나 05



Economy

코스피	2459.45 (0.00)	코스닥	865.80 (0.00)
금리 (미국 3년)	2.29 (+0.01)	환율 (원/달러)	1069.80 (-0.40) (9일)

공장 80% 노는데 연봉은 1억... 노조에 진 GM

강성노조의 그늘

한국GM의 현실

가동률·생산성 감소에도 노조는 임금 인상위해 파업 등 강경입장 고집 단순 생산기지로 전략

회사 경영환경은 아랑곳 않은 채 도를 넘어선 주장을 되풀이하는 강성노조의 폐해는 한국GM 사태에서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다. 지난달 13일 한국지엠(GM)은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한국GM의 본사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측이 내세운 군산공장 폐쇄의 표면적 이유는 군산공장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였다. 실제로 최근 군산공장 가동률은 20%를 밑돌았다. 군산공장의 직간접 고용 인력

은 약 1만3000명이다. 노조의 무리한 자기 주장으로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 분석이다. ◆전형적 '고비용 저효율' 구조 한국GM은 미국 GM의 쉐보레 브랜드가 유럽·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수출물량이 급감해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생산성은 감소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노조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 고임금 구조가 맞물렸다. 한국GM의 1인당 급여는 2016년 기준 연간 평균 87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퇴직급여까지 더하면 평균 9700만원이 넘어 현대자동차보다도 많다. 군산공장 가동률이 20%대 머물면서 공장을 늘리는데도 임금은 계속 올랐다는 얘기다. 메리베라 GM 회장이 "한국GM 비용 구조는 매우 힘든 환경"이라고 언급한 배경도 이와 무

관치 않다.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노조는 임금 인상을 위해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이면서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다. 올해도 비슷했다. 한국GM 사측은 지난달 28일 3100억원 절감을 목표로 한 교섭안을 마련해 노조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년 1인당 1000만원씩 지급된 성과급을 줄여 연간 1600억원을 절감하고, 복직비용을 줄여 이를 맞춘다는 계산이지만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반면 미국의 GM 노조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했다. 2009년 GM 노조는 북미 47개 공장 가운데 17개를 폐쇄하고 생산직 6만 1000명 중 2만 1000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받아들였다. GM 노조가 속한 전미자동차노조(UAW)도 2년간 임금 동결 및 파업 유예, 상여금 포기 등을 수용했다.



환호하는 대한민국

11일 오후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체코에 승리한 한국 팀 선수들이 환호하며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비용·저효율 구조, 제조업 분야의 공통현상 한국GM의 사업 형태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GM은 연구개발에 집중하기보다 단순 생산기지로 전략했다.

GM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한 것은 한국에 대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보다 단순히 차량을 생산하는 생산기지로 전략시켰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신차 개발을 등한시한 데다

품질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지엠은 과거 군산공장에서 생산된 라세티(크루즈 이전 모델)와 크루즈를 유럽지역에 20만대 가량 수출해 왔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평창서 운전대 잡은 文, 한반도의 봄 이끄나

4월 말 남북정상회담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 개최키로



북한 방문 결과를 미국에 공유하고자 출국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봄이 빠르게 찾아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말께 판문점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에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봄이 한창 무르익는 4~5월에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내딛는 것이다. 우리측이 곧 촉각을 세울 중국, 일본, 러시아도 여

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취임 이후 줄곧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째에 접어들면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을 적극 활용해 당사자

인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4강'을 모두 아우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전환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운전대를 잡은 문 대통령 옆에

김정은 위원장이 앉고 뒷좌석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자리 잡은 모양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동계패럴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한 것은 대한민국에 너무나 큰 선물이 됐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현실이 돼 가고 있다. 평창에서 열린 올림픽과 패럴림픽, 또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새로운 세계평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메트로신문 '2018 100세 플러스 포럼' 100세 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8일 '2018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와 저성장 지속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터널이 길어지면서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100세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를 모색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를 주제로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 전략(세션1), 100세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에 대해 토론(세션2)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식 투자전략과 정부 규제 속 부동산 투자, 기업공개(IPO) 전 엔젤투자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치투자'로 유명한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사장, 프리 IPO 투자 전문가 정은현 퀴텀인베스트먼트 대표, 똑부러진 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유명한 안명숙 우리은행 WM자산센터 부장 등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이날 '100세 플러스 포럼'을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재테크 전략을 접하시길 기대합니다.

- 행사명 : 2018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 주제 : 100세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
- 일시 : 3월 28일(수) 08:30~13:00(VIP 티타임 08:30~08:55)
- 장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그랜드홀
- 문의·참가 신청 : 전화 (02)721-9826, e-메일 :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오찬 제공)
- 주최 : 메트로신문

박진수 "매년 15% 고도성장... 내년 매출 30조"

(LG화학 부회장)

LG화학 기자간담회 에너지·물·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본격성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LG화학

"2020년까지 연 평균 매출 15% 성장과 기술 고도화로 수익성 확보하겠습니다." 박진수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9일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에너지·물·바이오·소재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본격적인 성장을 통해 지난해 25조6980억원이었던 회사매출액

을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30조원에 진입시키고, 내후년에는 35조원대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L7면> 2010년대 들어 유수의 글로벌 화학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1%를 채 넘지 못한다는 점에 비추보

면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2010~2016년 독일 바스프의 성장률은 0.5%였고, 미국 다우케미칼(-1.8%), 일본 미쓰비시화학(-1.8%)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LG화학도 같은 기간 0.9% 성장에 그쳤다. 박 부회장이 이처럼 고도성장을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와 신성장동력 확보다. 박 부회장은 ▲과감한 투자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시설투자: 3조 8000억원, R&D: 1조1000억원) ▲미래 성장을 위해 사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물, 바이오, 차세대 신소재 집중 육성세에 나선다.

박 부회장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늘어날 매출 10조원 가운데 반 정도가 전지 쪽"이라며 "나머지는 고르게 기초소재나 정보전자, 바이오 쪽이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지에서는 자동차 전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 부회장은 "수주물량과 관련해 해구체적으로 자동차 업체와 물량을 발할 수 없지만 지난해까지 전지차 배터리 수주 잔고가 30개 회사로부터 42조원이고 올해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서산·양성운 기자